

iM FX Brief

달러와 원화의 동상이몽

FX Brief

[경제] 박상현 2122-9196 shpark@imfnsec.com

주간 동향: 강한 미국 경제와 달러 강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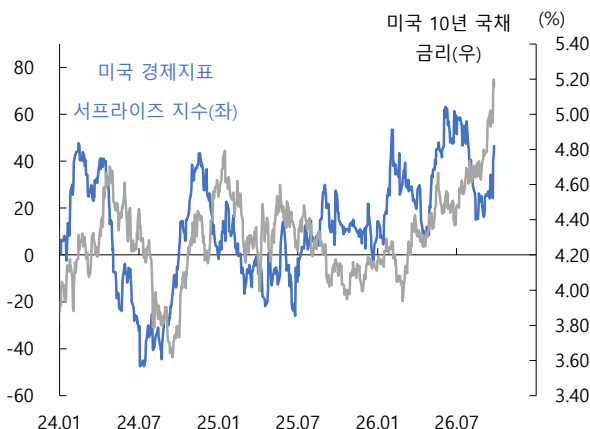
- 미국 경제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호조를 보이면서 국채금리 역시 동반 급등함. 우선, 9월 미국 S&P PMI지수는 58.4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지수 모두 강한 확장세를 보이면서 5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함. 또한, 미국 투자사이클의 대용치인 8월 항공기제조와 비국방 자본재 수출 역시 전월비 1.6% 증가하는 등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 모멘텀을 뒷받침해줌. 이에 따른 미국 국채금리 급등 여파로 달러화 역시 전주대비 강세를 기록함
- 유로화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 영향과 100달러를 상회하는 브렌트유 가격 영향으로 전주대비 하락함
- 달러-엔 환율은 소폭 상승함. 주중 158엔대까지 상승하던 달러-엔 환율은 미-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상승폭이 축소됨
- 위안화는 약세를 보임. 달러 강세와 그 동안 위안화의 가파른 상승세에 따른 숨 고르기 영향으로 약세를 기록함
- 호주 달러는 달러 강세 영향과 호주 실업률이 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주대비 큰 폭의 약세를 기록함
- 달러-원 환율은 2% 넘는 하락폭, 즉 원화 강세 흐름을 보임. 달러-원 환율이 반등폭이 펀더멘털 대비 과도했다는 점과 주가 반등이 달러-원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함

	9월 25일 증가	전주 대비 (%)	전년말 대비 (%)
달러화 지수	101.0	0.75	2.69
유로-달러	1.139	-0.83	-3.02
달러-엔	157.3	0.25	0.36
역외 달러-위안	6.72	0.41	-3.63
호주달러-달러	0.70	-1.38	5.25
달러-원	1,357.0	-2.06	-6.07

금주: 보험권 흐름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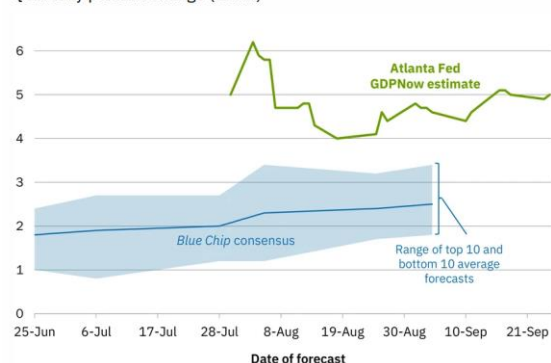
- 미-이란간 갈등에 따른 유가 추이, 미국 국채금리 추가 상승 여부 및 트럼프 대통령의 엔저 우려 표명 이후 엔화 흐름 등 다양한 불확실성 변수로 달러화 역시 당분간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. 달러-원 환율은 월말 배당금 역송금 수요 등이 있지만 수급 요인보다 대외 변수 흐름에 영향을 받는 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
- 금주 달러-원 환율 예상 밴드는 1,340~1,390원으로 전망함

그림1. 미국 주요 경제지표가 큰 폭의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국채금리도 동반 급등



자료: Bloomberg, CEIC, iM증권 리서치본부

그림2. 미국 애틀랜타 연준의 3분기 미국 GDP성장률 추정치는 9월 25일 현재기준 전기비 연율 5%

Evolution of Atlanta Fed GDPNow real GDP estimate for 2026:Q3
Quarterly percent change (SAAR)

자료: 미국 애틀랜타 연준, iM증권 리서치본부

Compliance notice

-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-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 -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,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